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 갱신

이 장 로 (기학연 부소장, 한국리더십학교장, 고려대 교수)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의 양적 성장을 지속해오던 개신교가 이제는 그 성장을 멈추고 침체기에 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995년도에 비해 개신교의 신자수가 줄었다. 또한 교회의 이미지도 악화되고 있고 반기독교 활동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도는 힘들어지고 교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다. 과거 100년 이상 교회가 사회변화를 이끌어왔던 선한 영향력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사회가 교회변화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조직이론에 의하면 이런 침체기에서는 어느 단체든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고, 그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론을 교회에 적용해보아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월로크릭교회 담임목사 빌 하이벨스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지도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갱신은 교회지도자들의 리더십 갱신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 갱신과 그로 말미암은 한국교회의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변화는 과연 가능한가? 성경과 세계 역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역사의 장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교회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위기탈출은 리더십 갱신으로부터

첫 번째로 갱신해야 할 리더십은 셀프리더십(self leadership), 즉 리더가 스스로를 이끌어 가는 능력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리더요, 다른 하나는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리더이다. 크리스천의 셀프리더십은 성령을 따르는 팔로워십(followership)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지도자들의 삶의 뜻대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존 스토틀 목사의 고별설교문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또한 교회지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요17:4)고 하셨다. 교회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골고다는 어디인가, 목숨 걸고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로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은 섬김의 표본이시다. 그가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한 마디로 섬김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섬기는 리더는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섬기는 리더는 원래 신분과 위치로부터 떠나 자신이 섬겨야 할 집단 속으로 들어간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들과 같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함께 애통해하고 견딜 수 없는 의분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한다. 나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이 되기로 자원하게 된다. 비록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치 주님인 것처럼 대하고 보살피며 섬기게 된다. 섬기는 리더는 마침내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고 목숨마저 희생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신하는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다. 한국의 교회지도자들은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이다.

세 번째로 리더를 세우는 임파워먼트 리더십(empowerment leadership)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동시에 그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비유를 보면 리더의 임파워먼트를 볼 수 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탁월한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강점을 살려서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돕고 격려한다. 비유에서 종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결실을 거두고,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자기 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란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과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서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고 그 슬픔을 아시고 견딜 수 없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비전이 잉태되는 길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개신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사회봉사에 많은 재정과 인력을 쏟아 왔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 개 교회 위주로 봉사활동을 하니 규모가 작아지고 사회의 필요에 적합하지 못했고 효과도 크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봉사에도 마이클포터 교수가 말하듯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회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사회적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어떻게 누가 공급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또한 천주교처럼 봉사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신교 봉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제와 봉사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다 보면 한국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해 본다. 일치와 섬김으로 국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전략적 영역을 정하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기

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세 가지 영역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미디어 영역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디어이다. 여기에는 개인 미디어로서 인기 연예인을 비롯해 인터넷,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전파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가 미디어를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기에 헌신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차세대 영역이다. 젊은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역사에 구현해갈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서번트 리더십의 저자 그린리프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를 변화시킬 서번트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세계수준의 탁월한 교육혁신을 이끌 수 있는 모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독교학교를 지원육성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올바른 교육관과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장 및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더욱 많은 장학지원에 힘쓰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교회교육을 혁신해서 미래 사회지도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꿈과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넓은 의미의 정부 영역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변혁하는 일에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구현하고 의와 평화와 희락이 넘치는 한반도와 통일시대를 만들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를 위해 21세기 모세, 요셉, 다윗, 느헤미야,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탁월한 리더들이 한국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2001년에 설립된 한국리더십학교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 글은 ‘기독교공보’에 실렸던 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조금 보완해서 올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